

문 닫은 사장님 10명 중 3명만 '다시 문 연다'

소진공 '2021년 광주·전남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재창업 성공률 광주 27.1%·전남 36.4% 그치고 '40대 최고'

광주 도소매·전남 음식주점업 최다...재기 위한 지원 확대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재창업에 성공한 비율은 광주 27.1%·전남 3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에서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1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자료에 담겼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10월19일-12

월5일 폐업한 소상공인 광주 140곳·전남 140곳 등 300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폐업하고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 재창업 성공률은 광주 27.1%(38명)·전남 36.4%(51명)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재창업 성공비율은 28.0%(3000명 중 840명)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창업에 성공한 지역 소상공인 사례를 분석해보니 광주 38명 가운데 40

대 성공사례가 17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14명(36.8%)으로 뒤를 이었고, 60대 이상 4명, 30대 이하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51명 가운데서는 40대가 32명(62.7%)이 가장 많았고, 50대 16명(31.4%), 30대 이하 3명(5.9%) 등 순이었다. 60대 이상 재창업 성공 소상공인은 없었다. 재창업에 성공한 업종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전남은 음식·주점업이 최다를 나타냈다. 광주 재창업에 성공한 도·소매업 소상공인은 26.3%에 해당하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식·주점업 23.7%(9명), 교육 서비스업 13.2%(5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5.3%(2명), 제조업 2.6%(1명), 기타 28.9%(11명) 순이었다. 전남 재창업 성공 소상공인 3명 중 1명꼴

(31.4%·16명)은 음식·주점업으로 재기에 도전했다. 이어 도·소매업 13.7%(7명), 제조업 11.8%(6명), 교육서비스업·기타 서비스업(각 3.9%·2명), 기타 35.3%(18명) 등 순이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전국 소상공인 중 78.8%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을 원인으로 꼽은 이들은 60%로 조사됐다. 임대료나 금융비용,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폐업 이유로 꼽은 이들은 8.8%, 자금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8.5%로 각각 나타났다. 폐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55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이후 실제 행정적 폐

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결정한 이후 이들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도와줄 사회안전망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창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 응답자 중 39.2%에 불과했고, 취업 관련 정부 지원을 활용한 비율은 42.3%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이들은 28.7%로 조사됐다. 폐업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비율은 9.8%에 그쳤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회복 기간 폐업 기간 단축, 폐업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과 재창업·재취업 등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검은 수요일

코스피, 2년 2개월만에 2200선 아래로

달러 초강세에 외국인 국내에서 3000억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주식이 급락하는 '검은 수요일'을 맞았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4.57포인트(2.45%) 내린 2169.29에 장을 마치고 22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연저점 경신은 물론 증가 기준 지난 2020년 7월10일(2150.2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가 22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건 지난 2020년 7월20일(2198.20)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497억원, 기관은 1782억원 각각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3251억원 순매수했으나 지수를 방어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올라 오전 중 1440원을 돌파했다. 환율은 이후에도 고점을 넘어 1442.2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

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고가 기준 1488.0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들어서는 전날보다 18.4원 오른 1439.9원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밝은 여파로 달러 강세화는 지속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24포인트(3.47%) 내린 673.87에 마감했다. 증가 기준으로 2020년 5월 7일(668.17)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1333억원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734억원, 563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2조900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1조2000억원 각각 시총이 증발해 하루 새 증시에서 시총 54조원 가량이 증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태국·베트남 109만달러 수출 성과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2개국을 대상으로 무역촉진단을 파견해 총 119건, 500만달러 수출성과와 109만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역촉진단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 지역 광의료기업 11개사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태국·베트남 파견하여 현지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진흥회는 태국과 베트남의 수요가 높은 뷰티, 헬스케어 품목을 중심으로 11개사를 선정해 지난 7월 온라인 수출상담회, 8월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연속성 있는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했다. 그 결과 태국 무역촉진단 수출상담회는 현지 바이어 37개사가 참가해 70건, 3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총 2건, 23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무역촉진단 수출상담회는 현지 바이어

25개사가 참가해 49건, 2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총 3건, 86만달러의 계약 추진성과를 거뒀다. 진흥회는 올해 7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8월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9월 무역촉진단 현지 수출상담회까지 참가기업 11개사와 현지 해외바이어간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발굴된 현지 바이어는 오는 11월 23-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국제광융합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정철동 진흥회 회장은 "그동안 추진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현지에서 발굴한 유망 바이어들을 국내에 초청해 참가기업과의 연속성 있는 상담과 수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축협, 창립 64주년 조합사업 전이용 대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가운데)은 28일 '2022년 광주축협 조합사업 전이용 한마음대회'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위더스 광주에서 열고 창립 64주년과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처음으로 5년째를 달성한 성과를 축하했다.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는 조합사업이용 우수조합원 시상식과 공연 등이 진행됐다. <광주축협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열린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제공>

"첨단산단 입주기업·근로자 안전 강화"

광주 첨단산단 통합관제센터 문 열어...생활 편의성 제고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8일 광주첨단산단 내 광주지역본부 청사에서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AI와 ICT 기술이 접목된 통합관제시설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출·퇴근 등 생활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지난 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산업단지의 디지털, 친환경 전환을 위한 산자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전담기관인 산단공이 광주시(주관기관), KT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국비 85억원, 지방비 45억원 등 총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차년도에는 산단공 광주본부 청사 내 통합관제실 설치를 시작으로, IoT수위계측 시스템, 방범·교통·화재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및 광주첨단산

단 근로자 편의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 등이 설치됐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올해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이어서 ▲통합관제센터 전산인프라 ▲집수대응지원시스템 고도화 ▲지능형 CCTV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이 계속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정류장 ▲스마트보안등 ▲스마트주차장 설치 등도 진행되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입주기업의 재난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민간과 힘을 합쳐 첨단산단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연결 가전 1000만대 넘었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집안 가전 통합 맞춤 제어 내년 2000만대 넘을 듯

삼성전자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전세계 생활가전 제품이 1000만대를 돌파했다. 2018년 첫 선을 보인 스마트싱스 앱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에서부터 공기정화기,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삼성 가전을 연결해 손쉽게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제어를 할 수 있다. 기능이 대폭 확대된 2019년부터는 연결 가전 제품 수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1200만대, 내년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싱스 연결 가전 제품 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가전 제품의 동작 종료나 고장 정보 알림 등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과 가전 원격 제어 기능, 집안의 다양한 가전 제품을 하나로 연결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홈라이프'(SmartThings Home Life) 솔루션 도입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마트싱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공과 제품 진단·관리를 도와주는 '홈케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 체험존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9.29(-54.57)
↓ 코스닥	673.87(-24.24)
↑ 금리(국고채 3년)	4.338(+0.034)
↑ 환율(USD)	1439.90(+18.40)